

# 수화를 배워 봅시다

## - 종산층의 명절나가 -

**며**칠 후면 설이다. 민족의 대이동의 백적지근한 나날들, 바야흐로 설 시즌인 것이다.

조카들도 보고 오빠들도 보고 여우같은 올케들도 본다니 생각만 해도 버겁도록 기분 좋다.

그런데 나만 이렇지 둘러보면 아니, 주위랄 것도 없고 우리 집만 봐도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꽤있는 것 같다. 왜 그럴까? 동심이 모자라서인가? 아니면 세배 돈 주는 것이 아까워서일까?

그렇다면 필자의 의문도 풀고 읽는 분들의 궁금증도 해소시킬 겸 작년 설 즈음과 설 당일의 우리 집에서 펼쳐진 '리얼 드라마' 를 지금 여기서 재방영해보겠다. 재방송이라 시시하다구요? 그렇게 생각할 것 조금도 없다. 우리가 재방송을 왜 보는가? 본 방송이랑 내용이 똑같아서 보는 거 아닌가. 작년 설 보름 전부터 집안을 감싸고 도는 전운(戰雲). 넷째올케(오빠가 네명이다)의 '설 알리지' 가 시작됐다.

●●●●●●

넷째올케 : 어머니! 이번 설엔 음식을 주문해요. 둘째 형님도 직장 때문에 그렇고 저도 그렇고 명절 끝나면 그 다음날 기름 냄새 때문인지 어쩐지

저 거의 쓰러져요.

올엄마 : 글썸다. 음식이란 게 다 정성인데...

셋째올케 : 어머니님두 친 사람 나고 정성 냈지 정성 나고 사람 냈나요? 저 거의 쓰러져요

올엄마 : 글썸다. 난생처음 들어본 말이라...

넷째올케 : 어머! 그러세요. 그럴 줄 알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연로하신 어머니한테는 '난생처음' 처럼 좋은 것도 없어요.

난처해진 올엄마. 필자와 그리고 정서가 비슷한 셋째오빠 내외에게 S.O.S!

셋째오빠 : 어머니. 짐사탕 설 5일전에 보냈더니 우리 먹을 음식 우리가 합니다.

올엄마 : 그렇지? 그래야겠지. 근데 니 처가 고생이잖냐.

셋째올케 : (전화를 바꿔 받으며) 아니예요. 아가씨(딸자)랑 쉬엄쉬엄하면 금방해요. 걱정마세요

올엄마 : (가동해서) 아가야! 고맙다. 나 거의 쓰러진다.

●●●●●●

그래서 설 일주일전ैया 음식을 집에서 하는 걸로 일단

락. 설 3일전부터 속속 모여드는 가족들. 필자 집이 증가 집인 관계로 큰오빠 작은오빠들 뿐만 아니라 사촌들 심지어 사돈댁에서도 사절단 파견. 일 치르기 전에야 갑론을박 말 많아도 결정 나면 언제 그랬냐 싶은 게 대가족의 속성이자 저력이다.

필자 역시 음식 하라, 조카들 돌보라, 술 먹으라, 눈 코 뜰 새 없이 바빴다.

하지만 명절이란 게 원래 그런 거 아닌가! 내가 한 음식 맛있게 먹어주면 고맙고 내가 한 음식 맛있게 먹은 오빠가 올케한테 "당신 음식솜씨 많이 늘었어" 하면 병신(?) 같고. 다 그런 거 아닌가! 외형상 우리도 남들처럼 성묘도 가고 아이들 장기자랑도 하고 오빠들 남동생 형부 모여서 술도 마시고 흥겨운 나날들이었다. 하지만 중산층(자칭) 구성원 사이에서 툼툼이 나누게 되는 대화 속의 레파토리들. 그리고 툼툼이 발견되는 속물스러운 필자 못 들은 척 그 방을 나올 수밖에 없었다.

●●●●●●

작은 올케 : 동서, 딱고 쪽 땅값 장난 아니게 올랐다는데 동서도 집에다 투자할게 아니라 땅에다 해. 땅!

넷째올케 : 아이 형님도 사랐나고 땅났지. 땅나고 사랐났나. 형님 괜히 해본 말이구. 제 앞에서 다시는 땅. 땅 거리지 마세요. 양그래도 그것 땀에 잘못 자요. 형님! 요즘은 교육이 투자는요 성우(5살)재한테만 한 달에 거의 200(만원)이 들어가요. 허허! 투자진 투자.

셋째올케 : (묵묵부답)

이때 사린가스처럼 집안에 스며드는 위화감. 정말 고약한 순간이다. 한편 안방에서는 큰언니와 형부 엄마 셋이서 한담 중

큰언니 : 우리 보미가(모여대1년) 의대를 갔었어야 하는데... 엄마 나 미치겠어.

엄마 : 의대가 인생의 전부냐? 그러면 대한민국이 다의사천지면 누가 농사짓고 누가 항수(변) 푸냐?

형부 : 장모님 우리애가 의대가 아니면 한의대라도 갔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정말 아쉽습니다.

엄마 : 니들은 왜 그러냐? 당사자가 적성 맞은 거 하고 싶으면 됐지.

필자 안방에 있으려다가 안방 화장실에서 볼 일만 보고 나올 수밖에 없었다. 갈 데 없는 필자. 이번엔 사랑스러운 조카들이 모여있는 방으로 갔다.

조카(대학2학년) : 야, 그 루이비통 진짜냐?

조카2(고교2년) : 오빠는? 진짜지 그럼.

조카3(대학1학년) : 그런데 숙모(넷째 올케)가 진짜 돈을 많이 버나봐. 나 수표로 용돈 받았잖아.

조카 : 진짜 돈은 있고 봐야돼. 품 나잖아. '서울대 지역 할당제' '노무현 정권의 개혁성' 나그런 거 몰라. 그거 주식시장에 내놔봐. 누가 사나.


●●●●●●

우리 집 명절의 더하기 빼기 없는 적나라한 모습이다. 자, 그렇다면 읽는 분들께 질문 한번 해보자. 과연 우리 집에 자신있게 돌 던질 사람 몇 분이나 될는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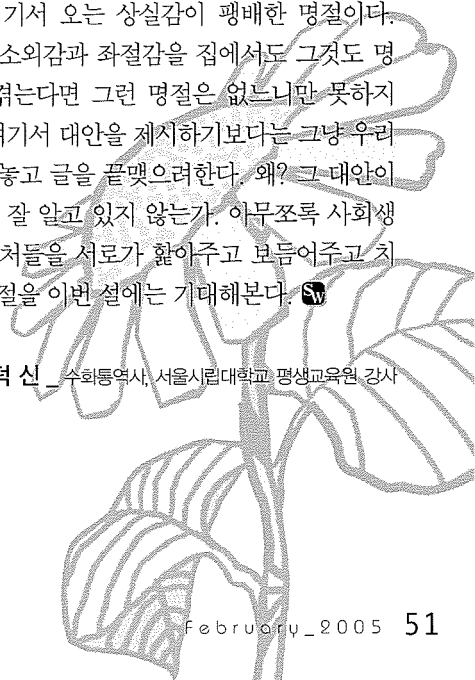
지금 이 모습이 우리 집의 단면이자 현 우리사회의 축소판인 것이다. 모든 가치가 물질로 환원되고 그리고 환원될 수 있다고 믿는 경박성. 그리고 자기보다 못한 구성원들에게 베푸는 배려보다는 서로 자기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섭섭해하는 몰염치함.

그렇다! 필자는 우리 집을 얘기하는 동시에 현 대한민국을 얘기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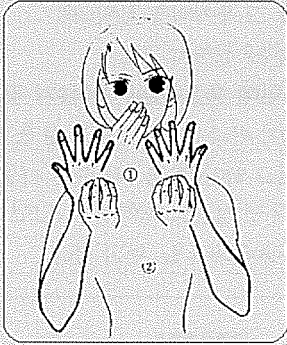
만약에 다른 집들 다른 사회구성원들은 안 그런다고 필자가 생각했다면 내가 뭐하러 자랑스럽지도 않은 우리 집 얘기를 이렇듯 뚝뚝하게 하겠는가?

가족 간의 따뜻함이 많이 희박해져 가는 명절이다. 서로간의 비교와 거기서 오는 상실감이 팽배한 명절이다. 사회에서 맛보는 소외감과 좌절감을 집에서도 그것도 명절에 다시 한번 겪는다면 그런 명절은 없으니만 못하지 않는가? 필자는 여기서 대안을 제시하기보다는 그냥 우리들의 치부만 늘어놓고 글을 끝맺으려한다. 왜? 그 대안이야 우리들 스스로 잘 알고 있지 않는가. 아무쪼록 사회생활하면서 쌓인 상처들을 서로가 활어주고 보듬어주고 치유해주는 그런 명절을 이번 설에는 기대해본다. 

글 : 최 덕 신 \_수회통역사, 서울시립대학교 평생교육원 강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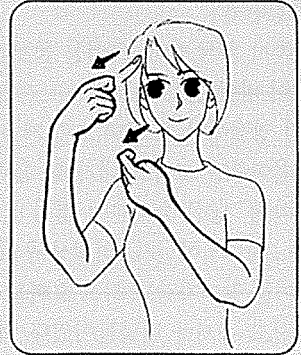
● 새롭다



● 부지런하다



● 기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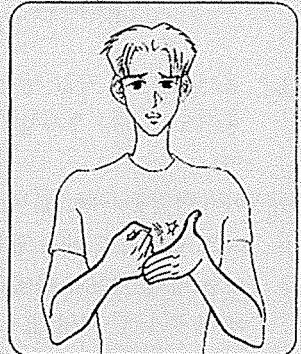
● 원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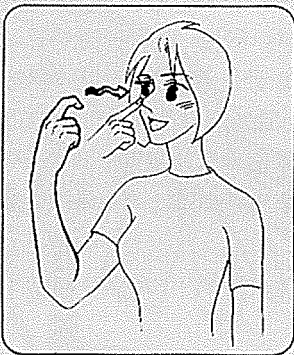
● 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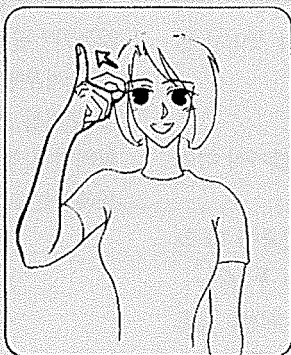
● 섭섭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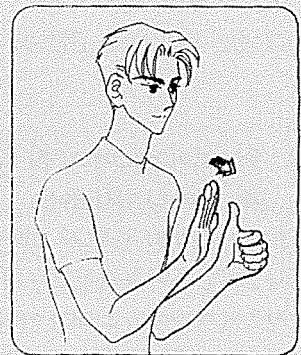
● 멋있다



● 훌륭하다



● 돕다



자료출처 : 수화뱅크 (조태순, 도서출판 수화샘)